

제 200 호

연중 제25주일

1976. 9. 19.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행복한 죽음

오 현 택 신부

죽음은 죄의 벌이요, 영혼과 육신의 갈림이요, 인생(人生)의 종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중요한 일이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한평생을 종결짓는 죽음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이고 무서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때 몹시 슬퍼했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양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나 할 것없이 누구나가 한번은 죽어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새로운 삶(生)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이 죽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운 아담, 예수님만이 죽음을 통한 영원한 행복, 평화,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수난을 받으신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 예수님의 죽음을 닮을때, 그분의 죽음과 일치할때 승리할 것이고 기쁘고 행복한 죽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대 성인들, 순교복자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분의 죽음과 일치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형장에 나갔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74세의 김로사 할머니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해 드렸고 또 보았습니다. 10시 미사에 오셔서 미사하시고 집에 가서서 옷장에 옷 꺼내 넣으시고 즉시 입중 준비하셨습니다. 신부를 청하기에 나는 놀랐습니다. 사목생활 12년 동안에 전주 서학동에서만 두번 체험한 일입니다. (한번은 전동 보좌신부 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生)·사(死)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닮는 태도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말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버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하므로써 그 증거를 보여야 되고 세상의 친구들을 하느님의 원수와 같이 생각하며 전투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생활만이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고 이 생활로서만이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준비시켜 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전주 서학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모이자, 기도하자

-순교자 현양대회 (10월3일)
-시복 시성을 위한 9일기도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平協)와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正平委)는 10월 3일 순교 선조들의 피로 축성된 숲정이(海星學校)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교구내 모든 본당의 공식미사가 이날 11시에 합동으로 봉헌될 예정이다. 늦은감이 없지않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겠다. 우리의 혈관에는 구정과 추석날에 조상의 묘를 찾을 줄 아는 뜨거운 미풍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우리들 전주교 신자들이 오늘날 신앙을 갖게 해주신 순교 선조들을 찾는 이날에도 풍성거리는 귀성열차의 호숫함을 맛보자.

또한 교구 평협은 순교자 현양대회를 앞두고 모든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9일기도를 바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히 김택덕 주교님께서 인준하신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 및 동료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자.

-모든 믿는자들의 위로자이시며 순교자들의 입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는 일찌기 놀라우신 안배로 이겨내 복음을 알리시고 거룩한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엎드리어 간구하오니, 치명의 영광을 얻으신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 및 동료 순교자들의 그 업적을 세계에 높이 기리고 하느님의 용사들이 남긴 표양을 마음 깊이 새겨 분발고저 하오니, 그들이 하루빨리 복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소서.

특히 유요한과 이루갈다는 부부의 계약을 맺었사오나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아 동정부부로서 세상에 드문 정덕의 꽃을 피웠사오니, 세속 향락을 좇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진 이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임을 알게 하시어 주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숲 정 이 산책



天高馬肥의 계절인데

전국 평협, 새로운 결의를 다져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전국 협의회는 지난 9월 3-5일까지 마산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10개 교구 평협과 6개 전국단체가 참가한 총회는 연수회도 겸하였다.

천주교구에서는 조성호(평협회장), 한상갑(평협사무국장) 대표와 전국평협 총재이신 김재덕주교와 연수회 강사로 초대된 법석규 평협지도신부가 참석하였다.

(간단하게 총회 과정을 그려본다)

1. 개 회 식

□ 회장인사(김기철 회장)

“평협운동이 시작된지 11년, 두드러진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반성할 점이 더 많다.

첫째, 평신도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평신도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사명감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둘째, 평신도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보다 큰 관심과 이끌어주심이 부족했다. 격려와 재책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발전이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사랑과 용기를 넣어 주시고 슬기를 주셔서 평협의 발전을 염려해주시고 뒷바라지해주시는 총재주교님과 지도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환영사(마산교구장 장병화 주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을 마음으로 부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전국 총회가 마산교구 설립 10주년 경축 전야제나 다름없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 처 사 (총재 김재덕 주교)

“평신도 사도적 운동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어려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극복해나가고, 그 어려움을 잘 피기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겠다.

평신도에 대한 문제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아주 비중 크게 다루어졌다. 바티칸공의회는 아지오르나멘토(교회 의 현대화)라는 기치 아래 교회가 지난날의 유물이나 사물이 아니고 생동하는 유기체로서 현재계에 그리스도안의 재건을 부르짖는 이 마당에 그 중심역할을 하는 평신도에게 기대를 건다.

또한 복자성월인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볼때 평신도의 역할은 컸다.

—시복 시성 운동

—신자 재교육

—도시와 농촌교회 결연 운동

이제는 공의회 이후의 새로워진 교회의 사회관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찾아야겠다.

지난 1년동안의 여러분의 자발적인 시복시성운동이나 평신도 재교육 교재(크리스찬 생활)를 발간해서 활용해 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린다.”

2. 연 수 회(지면부족으로 주제만 소개)

-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법석규 신부)
- 교회와 사회참여(정하권 신부—대진신학대학장)
- 교회의 평신도(김수환 추기경)

3. 사업계획 수립 및 결의문 채택

임원개선에서는 전회장단을 유임시키고(회장 金基哲, 부회장 曹成浩, 광영자), 부회장에 한몽연씨를 보강했다

□ 사업계획(간추림)

1. 시복시성운동—기도, 기적 및 자료수집, 헌금운동등
2. 평신도 교육—피정교재 “크리스찬 생활”을 통하여
3. 출판물 보급운동—경향잡지, 소년, 시보, 사목 등
4.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의 자매결연

□ 결 의 문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전국 협의회는 1976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마산에서 제9차 정기총회와 연수회를 마치며 한국의 100만 천주교 신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순교 선조의 시복 시성 운동이 후손인 우리들의 도리임을 재인식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봉헌한다.

1. 우리는 이 시대에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증거해야함을 재인식하고 이에 앞장 선다.

1. 우리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믿음과 공의회 정신을 배우고 실천한다.

1. 우리는 3·1사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힌 3월12일 한국 주교단의 성명을 전폭 지지하며 구속된 애국인사와 목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1976년 9월 5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전국 협의회
(文責在記)

□ 신앙의 길잡이 □

경 향 잡 지

■구독료: 月 200원 (1년 선불은 2천원)

한국 천주교회가 67년동안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발행해온 신앙의 길잡이인 경향잡지.

알고계시죠? 구독하고 계시죠? 아직도……?

집집마다 1권씩 빠짐없이 구독합니다.

■구독 신청: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16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부

□양서 안내□

解 放 神 學

—마태오 복음에서 본

값 1,200원 (216페이지)

日本 上智大學 教授 니콜라스 神父 (Rev. Adolfo Nicolas, S. J.)께서 지난 6월 천주교구 사제 연수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역에는 明洞의 강우일 신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레스 神父 지도 M. B. W 研修會 講議錄 (값 1,200원)

■發 行: 全州 教區 司牧局(전주시 서노송동 560-6)

□복자성월□

동정부부(童貞夫婦) 유요한과 이루갈다

—결백한 옥잠화의 장한 순교—

김 영 구 신부

전주 동북쪽 뒷산 승암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요한(柳重誠)과 이루갈다(李六喜) 동정부부 유해가 그 일가족 네분과 함께 시복시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요한은 유행점의 만아들로서 본성이 온순하고 행동이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서삼경을 읽혔고 성서와 교리서적을 많이 읽어 교리지식도 상당하였다. 그는 백만장자의 아들로서 수하에 남녀노복이 수십명이었지만 지방에서 모여드는 교우들을 접대하는 데에 조금도 부गत집 만아들의 티가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관후하였다.

중성은 틈만 있으면 신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교리의 의심나는 점과 못알아들은 조목을 일일이 물어보고, 자기는 천주를 위하여 일생을 홀로 살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리를 파고들어 신부는 감탄하면서도 큰 두통거리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주문모신부가 그의 집을 떠나려던 며칠전 밤에 요한은 일생동안 동정지킬것을 신부에게 솔직히 고백하였다. 주신부는, 후에 루갈다에게 말한 그대로, 조선 풍속과 부गत집 만아들로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언제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국에 그러한 생활이 어렵다는 것 등이유를 들어 만류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었다. 주신부는 그를 통해서 자기네 중국사람보다도 우월한 많은 점들을 보고 감탄하여 조선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주신부는 요한의 마음을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끝에 그의 부모와 의논하였다.

이루갈다는 왕족의 후손이었다. 아버지 이윤하(李潤夏)는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경녕대군의 13대 손이요, 천주실의를 평한 이수광의 8대 후손이었다. 또한 그의 어머니 권씨는 권일신의 누이였다. 아버지 이윤하는 권일신과 남매간이었고 정약중, 정약용, 이시승훈, 이벽, 이가환 등과 막역한 사이였다. 이러한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루갈다는 성품이 온아 단정하였고 종교교육도 잘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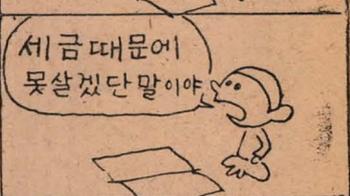
루갈다는 14세에 어리다고 하여 성체를 배령하지 못한 슬픔에 나홀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듯 하고 기도와 묵상을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당시 여자 나이 14세면 결혼하기 성에 넘겨하였다. 조숙한 루갈다로서는 이성과 관념이 발달하여 일생을 천주께 바쳐 성모 마리아나 다른 동정 성녀들과 같은 생활을 하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던차에 처음음으로 마음에 모실 영적 신앙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제지는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 애타는 마음이 알려져 루갈다는 부활주일에 첫영성체를 하게 되어, 성체를 모시는 그때 일생을 동정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후에 그 뜻을 주신부께 알렸다. 그러나 주신부는 유요한과 마찬가지로 만류했다. 하지만 그의 굳은 뜻은 꺾을 수 없어 주신부는 요한과 루갈다를 맺어주기로 하고, 그들의 부모들도 기꺼이 승락하였다.

이들은 거룩하게 살다가 스물의 꽃다운 나이로 장하게 주님을 증거하였다.

편집자註: 김신부님께서 좋은 글을 자세히 써주셨으나 지면관계로 다 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여기며, 김영구 신부님과 김구정 선생님이 쓰신 천주교 湖南發展史: <값 1,000원, 연락처 ② 8345>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심이 (164) 김병호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혹·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289

김 금 순 (테레사)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준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온돌공사

(본사직영 호남출장소)

이리시 연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암(모이세)

금암동 ⑤614 군산 3032

다가동 ②432 부안 736

전 동 ②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김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막은행 앞

전화 ②4007, ②7007



☆ (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긴 ☆

수석(水石) 치과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딩)

전주시 중앙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665

